

허들 정혜림 ·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적수가 없네'

(광주시청)

(여주시청)



정혜림이 26일 강원도 정선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육상경기선수권 여자 100m 허들 결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림 100m 허들 13초65 우승
진민섭 5m40 뛰어 대회 4연패
광주시청 100m 릴레이서 3위

코로나19도 '아시아 허들 여제' 광주시청 정혜림(33)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 정혜림은 지난 26일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선에서 13초65로 우승했다. 정혜림은 국내에 더 이상 적수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 2월 말 국제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4개월여 실전을 치르지 못했지만 실력은 여전했다. 정혜림은 초반부터 앞서갔고 8번째 허들에서 발이 걸렸지만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2위 조은주(포항시청·14초13)와는 기록 차이가 컸다. 4개월여 트랙을 밟지 못한 탓에 기록은 좋지 않았다. 지난 2월 29일 호주에서 열린 호주 캔버라 썸머 시리즈 대회 여자 허들 100m에서 13초33을 기록했던 정혜림은 4개월여 실전 대회를 뛰지 못했고 이날 조속 1.1m의 맞바람까지 안고 뛰었지만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정혜림은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그의 최종 목표는 도쿄올림픽 출전이다. 정혜림의 개인 최고 기록은 13초04다. 도쿄올림픽 여자 100m 허들 기준 기록은 12초84다. 기준 기록 통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랭킹 포인트로 출전권을 노리고 있다. 랭킹포인트를 인정받는 시점인 올해 12월 1일부터 경기에 자주 출전하고 꾸준히 좋은 기록을 만들어 랭킹 포인트를 쌓는다는 계획이다.



진민섭이 27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육상선수권 남자 일반부 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 5m40을 가볍게 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열린 남자 4×100mR에 나선 광주시청은 3위를 기록했다. 여호수·김민균·송만석·강의빈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은 41초08을 기록, 안양시청(40초45), 안산시청(40초88)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자 400mH에서는 광주시청 장지용(28)이 51초95로 3위를 차지했다. 진민섭은 같은 대회 남자 일반부 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는 진민섭(28·여주시청)이 5m40을 뛰어 우승했다. 진민섭은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진민섭은 5m40을 1차 시기에서 넘고 우승을 확

정했다. 이후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 5m80보다 1cm 높은 5m81에 도전했으나, 신기록 달성에는 실패했다. 진민섭은 3월 8일 호주 전지훈련 과정 중 참가한 NSW 뱅크스타운 대회에서 5m80을 뛰어 한국신기록(중전 기록은 진민섭이 세운 5m75)을 세우며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5m80)도 통과했다.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은 진민섭은 한결 편안하게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이클 간판' 나주 출신 나아름, 양양 전국선수권 3관왕

사이클 중장거리 간판 나아름(상주시청)이 올 시즌 첫 사이클 대회인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나주 출신인 나아름은 지난 21~26일 강원도 양양 양양벨로드롬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자 단체추발, 팀포레이스, 메디슨에서 정상에 올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에 오른 나아름은 국내대회에서도 정상의 기량을 발휘했다.

남자부의 임재연(코레일)과 박상훈(의정부시청)도 나란히 3관왕을 기록했다. 임재연은 남자 단체추발과 제외경기, 스크래치를 제패했다. 박상훈은 남자 개인추발과 포인트레이스, 메디슨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상훈은 개인추발에서 대회신기록(4분 24초 872)도 달성했다. 여자 경륜 세계랭킹 1위인 이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윈)은 여자 경륜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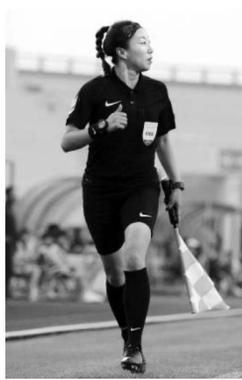
고등부에서는 양양고와 전북체육고가 각각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사고등부의 박한성(양양고)과 여자고등부 황현서(전북체육)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국내 사이클 대회는 지난 3월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상반기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번 양양 대회를 시즌 개막전으로 치렀다. /연합뉴스

여자실업축구 WK리그 최초 200경기 출장 양선영 심판 "눈물의 첫 경기로 시작...자부심 된 18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가끔 중계 방송으로 축구 경기를 보기는 했지만, 그라운드를 밟아본 적도 없었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중계방송 속 우연히 눈에 들어온 심판의 모습에 반해 무작정 뛰어들어 미지의 세계에서 어느덧 18년을 버텼다. 최근 여자실업축구 WK리그에서 심판 최초로 2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양선영(43·사진) 부심 이야기다. 2009년 1급 심판 승급 이후 졸곧 WK리그 현장을 누빈 양 심판은 이달 22일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0시즌 2라운드 보은 상무-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경기에서 가장 먼저 200경기 금자탑을 세웠다. 그는 "200경기인 줄도 몰랐다"며 "모든 동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TV로 유료2000 경기를 보다 관심이 생겨 대한

축구협회의 강습을 듣고 자격을 취득, 심판의 길에 들어섰다는 양 심판은 축구계에서는 여전히 드문 '비선수 출신' 심판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27명의 여자 1급 심판 중 한 번도 운동에 몸담은 적이 없었던 이는 양 심판을 포함해 3명 정도다. '비선수 출신'으로 겪는 고충도 적지 않았다. 심판에게 쏟아지는 항의와 자신의 실수에 속을 태운 것은 물론 체육계 문화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 그만둘 생각도 했다. 양 심판은 "처음 발을 딛는 세계에 적응하려니 쉽지 않았다. 동료들이 내가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다고 하더라"며 웃었다. 그를 버티게 한 건 "심판을 보면서 얻는 성취감, 경기 후 밀려오는 뿌듯함과 자부심"이었다. 축구계의 '주류'라 할 수는 없는 WK리그에서만 12년. 이 무대에 대한 양 심판에 애착은 각별하다.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본 선수들이 많았다"면서 "청소년기부터 봐온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태극마크를 다는 모습을 보면 괜히 뿌듯하고 내 일처럼 기쁘다"고 말했다. K리그에서 활동하는 남편 송봉근 심판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는 양 심판은 이 기간을 늘리고 싶은 의지도 크다. 연 2회 체력 측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해에도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일주일에 3~5일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장을 달린다. /연합뉴스



전남당구연맹 김행직 국토정중앙배 준우승

이충북 3년만에 전국대회 우승 김행직(전남당구연맹·국내랭킹 3위)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했다. 김행직은 '제8회 국토정중앙배 2020 전국당구대회'에서 이충북(시흥시체육회·5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행직은 26일 강원도 양구군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캐롬 3쿠션 남자 일반부 결선전에서 이충북에 27이닝 만에 34-50으로 졌다. 이충북은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은 올해부터 바뀐 국제 경기 규정에 맞춰 50점제로 진행됐다. 초반부터 이충북의 기세가 예상외로 뜨거웠다. 첫 이닝부터 5점을 기록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

고, 10이닝에 하이런 8점으로 19-9로 10점 차까지 점수를 벌였다. 김행직은 꾸준하게 점수를 올렸으나 19이닝까지 하이런 2점에 그칠 정도로 기세를 올리지 못했다. 이충북은 23이닝 3점, 24이닝 5점을 기록하며 49점 고지에 올랐다. 결국 27이닝에 마지막 1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충북은 '2017년 인제 오미자배 3쿠션 페스티벌' 이후로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평균 에버리지 2.018, 하이런 10점을 기록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같은 날 치러진 여자부 결선에서는 김민아(실크로드시앤티/2위)가 스루 피아비(서울당구연맹·1위)를 25-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데이비스컵·페드컵 테니스 대회 내년으로 연기

테니스 국가대표팀인 데이비스컵(남자)과 페드컵(여자) 올해 일정이 2021년으로 미뤄졌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2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때문에 올해 예정됐던 데이비스컵과 페드컵 일정을 2021년에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자 국가대표팀인 데이비스컵은 올해 9월 월드컵 1, 2경기를 치르고 1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8개 나라가 모여 데이비스컵 파이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월드컵 1, 2경기를 2021년 3월 또는 9월로 연기하고, 파이널은 1년 뒤인 2021년 11월에 열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월드컵 1경기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원정도 2021년 3월 또는 9월로 순연됐다. 1900년 창설된 데이비스컵이 우승 국가를 배출하지 못한 해는 세계 2차 대전이 열린 1945년 이후 올해가 75년 만이다. 2021년 데이비스컵 파이널에는 올해 파이널에 출전할 예정이던 18개 나라가 그대로 나가게 된다. 또 올해 4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페드컵 결승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체 날짜를 정하지 못하다가 1년 뒤인 2021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3관	배트맨 비긴즈, 침입자, 엔딩스 비기닝스
4관	#살아있다
5관	결백
6관	#살아있다
9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결백, 위대한 쇼맨 에어로너츠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8관	씨네카를 결백, 사라진 시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p>장미꽃기방</p> <p>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장미꽃기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p>	<p>박주원의 방랑예찬</p> <p>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p>	<p>노인과 바다</p> <p>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p>	<p>오월바람</p> <p>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창작발레 오월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p>
---	---	--	--